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1. No. 2 (2024) pp.215~260

북한『손말사전』의 성격과 특성

임 지 룡
(경북대학교)

Lim, Jiryong. 2024. The Character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ies.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1*(2), 215-260. This paper, in its exploration of the character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ies, identifies five such texts currently in existence: ⓐSign Language Dictionary(2005, 2,395 items); ⓑSign Language Learning(2005, 535 items); ⓒChosun Sign Language Cards(2009, 106 items); ⓓ Sign Language Dictionary(2019, 4,018 items); and ⓔKorean Sign Language & Choseon Sign Language Dictionary(2021, 497 items). These dictionaries reveal various semantic relations between the headwords, which differ not only in initial sound laws and notations but also exhibit non-standard forms, many unique to North Korea. The positive attributes of the dictionaries include connectivity, accessibility, and reader-friendliness. However, several issues are noted, including inconsistencies between indicators and contexts, the readability of manual expressions,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an overemphasis on the spoken-language perspective, among other concerns. Additionally, the rate of correspondence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ign language found in ⓔ varies significantly: 90 of the 497 basic lexical items (18.11%) used in daily life correspond completely; 59 items (11.87%) correspond partially; and 348 items (70.02%) show no correspondence at all. In conclus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discrepancies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exical items are greater than anticipated. Therefore, the compilation of a Great Sign Language Dictionary of Korea, designed to benefit users in both regions, is highly recommended.

Key Words: North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ies, Sign Languages, Heading Words, Semantic Relations, Rate of Correspondence, The Positive Aspects and Problems of North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ies

1. 들머리

이 글은 북한의 주요 손말사전을 대상으로 그 성격을 검토하고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대상은 안태성 외(2005)『손말사전(롱아학교용)』, 김은희(2005)『손말학습(참고자료)』, 주수양 외(2009)『조선손말(카드)』, 로경수 외(2019)『손말사전(부문별손말)』, 그리고 박금순(2021)『한국수어 & 조선손말』이다.

북한의 손말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음 논의들은 주목할 만하다. 김태수(2008)는『한국수화사전(2005)』과『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을 중심으로 두 사전에서 같은 표제어 1,660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수형·수동·수위·수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하는 어휘가 231개(13%)임을 밝혔다. 윤병천 외(2016)는 조선손말 2,463개의 형태론적 분석을 하였는데, 조선손말의 분야는 21가지이며 그중 정치 분야의 올림말이 가장 많고, 9개 품사 중 명사가 가장 많았으며, 손말의 형태소는 4가지이며 하나의 형태소로 된 표제어가 78%였다. 또한, 양손 수어가 한 손 수어보다 2배 이상이며, 조선손말 단일어의 조어 유형은 5가지이고 복합어는 특정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결합하여 조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난희 외(2017)는 북한수어 2,391개의 수형을 분석하였는데, 수형은 70개이고 변이형 21개가 발견되었으며 그중 남북한 공통 수형은 58개, 북한에서만 출현하는 수형은 12개로 나타났다.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고저 빈도를 밝혔으며, 의미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단어의 수형 일치도는 양손 모두 일치 15%, 우세손 일치 21%, 비우세손 일치 23%, 불일치 71%로 나타났다. 최상배 외(2019)는 음운과 단어 수준에서 남북한 수어의 대조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남북한 수어에서 같은 의미를 같은 수어로 표현한 경우는 29%, 수어소가 부분 일치하는 경우는 37%, 수어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는 34%로 나타났으며, 남북한 수어의 수어소 출현 빈도에서 수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수위·수동·수향의 출현 순위는 상당히 유사하였으며, 남북한 수어의 합성어 구성은 북한 수어가 한국 수어보다 동시적 결합 구조가 많았으며 동형동의 수어가 33%, 동형이의 수어가 13%로 나타났다. 최상배 외(2022)는 한국·북한·일본 수어 401개를 대상으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들을 분석하였는데, 한국·북한 수어의 일치도는 완전 일치 122개(30%), 부분 일치 144개(36%), 완전 불일치 135개(34%)로 기술한 바 있다.

북한의 손말사전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첫째, 독자적인 언어로서 북한 손말의 성격과 특성을 밝히는 기초가 되며, 한국

의 수어사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둘째, 79년이라는 남북분단의 긴 세월 동안 남북한 수어와 손말 간에 동질성뿐만 아니라 이질성을 파악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그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된다. 셋째, 남북한 농인 및 청인들의 수어-손말 대조 교육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의 계기가 마련된다. 넷째, 음성언어의 경우 『겨레말큰사전』을 통해 남북한 언어의 하나 됨을 지향하려 하듯이, 『겨레수어·손말큰사전』 편찬의 계기가 된다.

요컨대 이러한 논의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손말사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나아가 남북한 수어와 손말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까지 한자리에서 논의된 바 없는 북한 손말사전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과 특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2. 북한 『손말사전』의 성격

2.1.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

2.1.1. 구성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1]은 안태성 외 8명이 집필하고 2005년 6월 20일 교육도서출판사에서 펴낸 것으로, 가로 19×세로 26cm, 822쪽, 견장정이다. 올림말 2,395개를 그림과 함께 해설을 단 것으로, 주요 구성은 '『손말사전』을 내면서(p. 1)', '일러두기(p. 2)', '차례(pp. 3-37)', '손의 구조·위치·동작 설명(pp. 38-52)', '자모순 손말과 해설(pp. 53-802)', '손말이 같은 단어들(pp. 803-821)'로 이루어져 있다.

'『손말사전』을 내면서'에서는 "새롭게 발전 풍부화된 손말 어휘들을 사전에 올림으로써 손말을 정리하고 롱아들의 언어생활에서 필수적인 성격을 띠는 어휘들을 통일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사전 편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3,000여 개의 손말과 언어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10여 개의 토들을 '올림말'[2]로 설정함을 밝히고 있다.

'일러두기'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올림말의 뜻풀이'는 기

1)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을 비롯하여 북한 손말사전에 대해서 도움(말)을 주신 영롱 농문화도서관과 세계밀알연합회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린다.
2) 실제로 이 사전의 올림말은 2,395개이며, 그중 '토'는 16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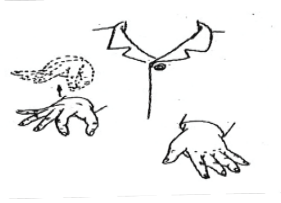
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와 맞춤법이 같은 단어들에서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한 뜻을 밝히고 있다. 둘째, 손동작의 해설 4가지를 밝히고 있다. 셋째,『손말사전』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 6가지를 밝히고 있다. 넷째, 올림말의 배열은 글자의 자모순에 따르고 있다.

'자모순 손말과 해설'에서 올림말 2,395개의 자모별 수치는 [표 1]과 같다. 그중 형식 형태소로 본 '토'는 '-는, -도록, -들, -로(으로), -를, -보다, -부터, -까지, -께서, -께서는, -은, -을, -에, -에게, -에서, -의'의 16개이며,[3] 접사는 '-성, -적[2]'의 2개이다.

[표 1] '자모' 별 올림말의 수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ㅏ
392	103	162	67	173	221	253	258	105	15	43	52	134	38	35	19	18	10	43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15	23	38	23	10	19	12	6	46	7	5	6	10	13	6	3	8	2	2

[그림 1]과 같이 올림말에 대해 왼쪽에는 손동작을 그림으로 보이고, 오른쪽에는 '가야금[명]'처럼 '올림말'과 '품사', [해설]로 손동작의 그림에 따르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가야금 [명]

[해설] 량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왼쪽으로 비껴펴서 손가락들을 벌린 다음 왼손을 약간 내리운다. 그리고 오른손을 약간씩 올리면서 첫 번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끝을 맞붙여 가야금타는 모양을 나타낸다.[4]

[그림 1] '가야금'

'일러두기'의 '올림말의 뜻풀이'에서 보았듯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혼돈을 막기 위하여 해당 뜻을 밝히고 있다. 첫째,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로서 (1)과 같이 다의어이다. 둘째, "맞춤법이 같은 단어들"로서 (2)와

3) 북한 손말에서는 토 '-는/-은', '-를/-을'이 별개의 올림말로서 손말의 형태가 다르다.
4) 이하 '북한 손말사전'의 인용은 그 정서법을 따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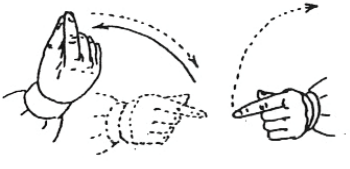
같이 동음이의어이다.[5)]

(1) a. 나무[1] [명] 줄기와 가지가 단단한 바탕으로 된 여러해 사는 식물.
b. 나무[2] [명] 재목이나 목재 혹은 땔나무.

(2) a. 갈다[1] [동] 날이나 끝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단단한 물체에 문지른다.
b. 갈다[2] [동] (농기구나 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

또한, (3)과 같이 '준말'의 본딧말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해설] 밑 (※) 안에 같은 동작이면서 손 모양의 변화만 다른 경우를 밝히고 있다. 즉, [그림 2]와 같이 올림말 '시금치'에 '근대'를 첨가하고 있는데, 같은 동작의 '시금치'와 '근대'에서 '근대'의 손동작 변화를 밝히고 있으며, '로씨야'와 '주일', '장애'와 '방지', '시험'과 '경기'도 그러한 보기이다.

(3) 농근맹[명]《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준말.



시금치 [명]
[해설] 량손을 주먹바닥이 마주 향하게 앞으로 쥔 다음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들을 약간씩 벌린다. 량손을 그 자리에서 한손씩 엇바꾸어 주먹바닥이 우로 향하게 좌우로 돌리면서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끝 바닥들을 제각기 맞붙이는 동작을 한두번 반복한다.
(※ 〈근대〉의 경우에는 량손을 각각 좌우로 올리면서 같은 동작을 한다.)

[그림 2] '시금치'

5) 이 기준은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는데, '만고' '못' '설복하다' '신소' '신심' '전호' '정령' '정전' '제기' '함영' '화신' '화점' 등은 동음이의어로서 손말 의미에 혼동을 일으키지만 '뜻풀이'가 없으며, '모레'는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도 아닌데 '뜻풀이'를 하고 있다.

2.1.2. 내용

『손말사전』의 내용을 '올림말'의 성격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올림말에서 주목되는 네 가지 사항을 들기로 한다. 첫째, (4a)의 두음 법칙이 다르거나 (4b)의 표기법이 다른 보기이다.

(4) a. 가렬하다, 녀동생, 대렬, 록화, 롱구, 롱담, 륙군, 리유, 래일
b. 거부기, 건느다, 고뿌, 기여들다, 도리여, 도마도, 도이칠란드, 드레박, 마치, 목란꽃, 무우, 미시가루, 바줄, 벌가리아, 불도젤, 숨박곡질, 스케트, 시내물, 세멘트, 저가락, 쳐부시다, 페, 홰불, 꾸바, 뜨락또르, 쁠스까, 뽐프, 아빠트

둘째, (5)의 문화어와 표준말이 별개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다.

(5) a. 가마치/누른밥, 난날/생일, 높은산지대/고산지대, 내굴/내, 닭알/달걀, 당콩/강남콩, 두리/둘레, 데림분수/대분수, 순경/경찰, 참분수/진분수, 땅생김/지형, 안해/아내, 우등불/모닥불
b. 로므니아/인디아, 로씨야/러시아, 마쟈르/헝가리, 체스코/체코, 캄보쟈/캄보디아, 웰남/베트남

셋째, (6)의 북한에서 생겨난 어휘로 표준말에 없는 경우이다.

(6) 가루기계, 결사옹위, 구호나무, 게사니, 다박살초소, '당의 유일사상',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데트론, 량권, 맥나다, 봉화리, 비날론, 소랭이, 손글, 손말, 수리화, 쇠돌, 정일봉, 조건타발, 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 초상휘장, 총비서, 채취공업, 체신소, 포로하다, 학생소년궁전, 혁명렬사, 혁명전통, 현지교시, 화학화, 아동단, 어로공, 어떡거다, 연필갑, 영생탑, 영양단지, 영예군인, 용해공, 인민군대, 인민위원회, 일색화

넷째, 북한 손말사전에 나타난 개성적인 경우이다. (7)은 (1960년대의) 농경사회에서 사용하던 어휘이며, (8)은 북한 특유의 정치와 군사에 관한 어휘이다. 한편, (9)는 다듬은 말을 지향하는 문화어의 경향과 다른 구호용 한자어이다. 이 사전의 올림말 2,395개가 330만 개 어휘를 싣고 있는『조선말대사전(1995)』의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손말사전』을 내면서'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어휘들은 "롱아들의 언어생활에서 필수적인 성격을 띠는 어휘들을 통일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관점에서 선정된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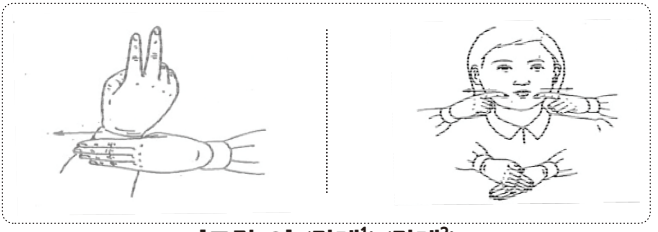
(7) 낟가리, 남포, 낫, 달구지, 돌피, 드레박, 등사기, 망나니, 머슴, 박우물, 분도기, 백묵, 사카린, 사탕가루, 삼태기, 성냥, 소작살이, 순경, 쇠스랑, 절구, 조, 주산, 지게, 짚, 짚신, 재봉, 쥐, 철필대, 철필촉, 칡, 포단, 팽이, 함, 호미, 꿩, 떼목, 뽕나무, 아주까리, 앉은뱅이, 여우, 엿, 오막살이, 울타리, 이랑, 앵두

(8) 결사옹위, 구호나무, 다박살초소, '당의 유일사상',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대고조, 로농적위대, 밀영, 반동, 보루, 보천보, 백전백승, 사령부, 사상혁명, 3대장군, 숙영지, 전취물, 정일봉, 종파주의, 주석단, 주체사상, 천리마작업반, 청년동맹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 초상휘장, 초소, 총비서, 친위대, 포로하다, 프로레타리아, 학생소년궁전, 혁명렬사, 혁명전통, 현지교시, 후비대, 핵무기, 아동단, 어로공, 영생탑, 영예군인, 요새화, 유격대, 유훈, 육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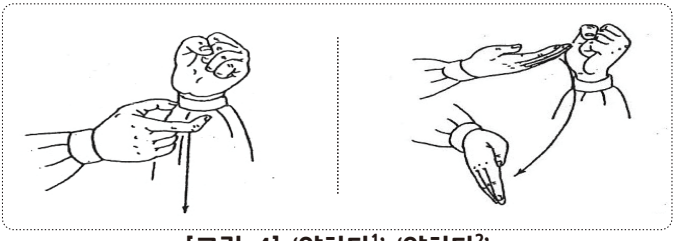
(9) 이민위천, 이신작칙

다음으로, 올림말의 의미에서 주목되는 다섯 가지 사항이다. 첫째, 다의어이다. 이 사전에서 다의어는 (10)의 10쌍이 올려져 있는데, (10a)의 9쌍은 [그림 3]의 '락제[1]' '락제[2]'와 같이 손말에서 아무런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다. 특이하게 (10b)의 '약하다[1]' '약하다[2]'는 [그림 4]에서 보듯이 다소 상관성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음성언어의 다의어는 손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10) a. 가을[1] 가을[2], 나무[1] 나무[2], 락제[1] 락제[2], 무장[1] 무장[2], 반대[1] 반대[2], 보고[1] 보고[2], 베다[1] 베다[2], 끊다[1] 끊다[2], 아저씨[1] 아저씨[2]
b. 약하다[1] 약하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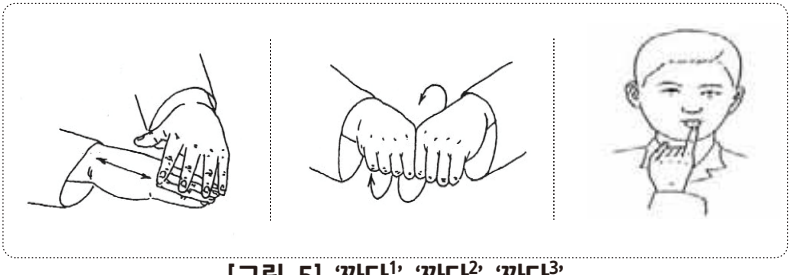
[그림 3] '락제[1]' '락제[2]'



[그림 4] '약하다[1]' '약하다[2]'

둘째, 동음이의어는 (11)의 21쌍이 올려져 있는데, [그림 5]의 '(가마니를)짜다[1]' '(물기를)짜다[2]' '(맛이)짜다[3]'에서 보듯이 음성언어와 달리 손말 간에 아무런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다.

(11) 갈다[1] 갈다[2], 말[1] 말[2], 밤[1] 밤[2], 벌[1] 벌[2], 북[1] 북[2], 분[1] 분[2], 분수[1] 분수[2], 비[1] 비[2] 비[3], 배[1] 배[2], 수도[1] 수도[2], 자주[1] 자주[2], -적[1] –적[2], 전사[1] 전사[2], 전차[1] 전차[2], 지도[1] 지도[2], 천[1] 천[2], 초[1] 초[2], 침[1] 침[2], 풀[1] 풀[2], 때[1] 때[2], 짜다[1] 짜다[2] 짜다[3]



[그림 5] '짜다[1]' '짜다[2]' '짜다[3]'

셋째, 동의어인데, 이 사전에서는 끄트머리에 '손말이 같은 단어들' 1,369쌍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형태가 다른 음성언어의 동의어가 형태가 같은 하나의 손말로 사용됨을 뜻한다. 음성언어의 측면에서 보면 (12a)의 '같이=함께'처럼 좋은 동의어, (12b)의 '극복하다[결함이나 약점따위를 바로잡아 없애버림]'과 같이 기존 형태의 의미가 바뀌어 '시정하다'와 동의어가 된 경우, (12c)의 '가정=가족'과 같이 의미의 외연이 다른 경우, (12d)의 '마사지다=고장나다'와 같이 문화어의 새말과 기존의 단어가 동의어가 된 경우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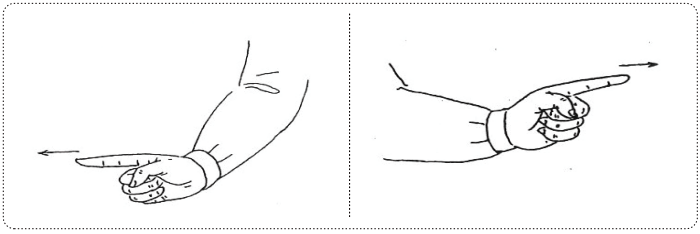
(12) a. 같이=함께, 공차기=축구, 낯=얼굴, 해=태양
b. 극복하다=시정하다, 몰살되다=녹아나다, 메케하다=멍청하다, 속보=벽보, 출장=여행
c. 가정=가족, 출석=출근, 체조=체육, 파도=물결, 합숙=기숙사, 효성=정성, 휴식터=놀이터=공원
d. 마사지다=고장나다, 말째다=불편하다, 자레우다=키우다, 조기다=때리다, 때식=밥, 따로외다=기억하다

넷째, 반의어이다. 손말의 경우 음성언어와 그 개념이 같지 않은데, 손말에서 (13a)의 '가볍다/무겁다'는 [그림 6]과 같이 아무 연관성이 없어 대립이 성립되지 않는 반면, (13b)의 '오른쪽/왼쪽'은 [그림 7]과 같이 좋은 대립을 이룬 사례가 공존한다. 실제로 이 사전에서 손말의 대립 여부를 온전히 규명하기 어려운데, (13c)의 '가깝다/(멀다)'의 '(멀다)'와 같이 손말의 짝이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3) a. 가볍다/무겁다
b. 곱다/밉다, 오른쪽/왼쪽, 과거/미래, 동생/형
c. 가깝다/(멀다), 긍정/(부정), 승리하다/(패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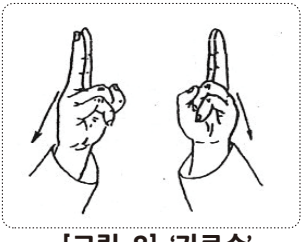
[그림 6] '가볍다/무겁다'



[그림 7] '오른쪽/왼쪽'

다섯째, 도상성, 환유, 은유이다. '도상성(iconicity)'은 손말의 형태가 그 지시물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갖는 것인데, 손말의 형태가 (14a)는 [그림 8]의 '가로수'와 같이 '모양'을, (14b)는 [그림 9]의 '다리미'와 같이 '(다림질하는) 동작'을 닮아 있다.

(14) a. 가로수, 가위, 강, 골짜기, 굴착기, 긁다, 건달, 고양이, 길, 나무, 나팔, 낟가리, 닭, 숨박곡질, 자물쇠, 잠자다, 장갑, 철봉, 우산
b. 갈다, 감다, 굽이굽이, 다리미, 모내기, 비, 시내물, 싣다, 세수, 자르다, 장기, 주산, 제비, 청소, 치솔, 호미, 톱, 쌓다, 썰다, 쓰다, 씻다, 짜르다



[그림 8] '가로수'



[그림 9] '다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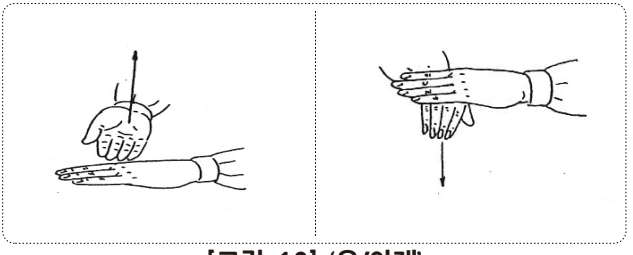
'방향'을 기준으로 좋은 대립을 이루는 반의어는 도상적인데, '우/아래'와 '앞/뒤'는 '직설적 도상성(literal iconicity)'이며, 이에 바탕을 둔 '비싸다/눅다', '이기다/지다', '발전/퇴보', '전진하다/후퇴하다'를 비롯한 (15)의 용례들은 '은유적 도상성(metaphoric iconicity)'이다. [그림 10]은 '우/아래', [그림 11]은 '비싸다/눅다'의 도상적 손말이다.

(15) a. 우: 고귀하다, 기세, 대표, 따뜻하다, 똑똑하다, 박사, 받들다, 배려, 부자, 분[1], 비싸다, 선조, 성공, 솟다, 수령, 숭고하다, 승리하다, 신성하다, 신조, 우두머리, 우뚝, 우러러보다, 위원장, 유명하다, 자라나다, 자유, 존경, 참되다, 창건, 총비서, 최고, 축하, 키우다, 통일, 튼튼하다, 패기, 풍년, 피다, 홰불, 희망, 힘

b. 아래: 꾸짖다, 눅다, 맥나다, 바보, 버리다, 벌[2], 벌금, 복종, 불합격, 불행, 서거하다, 섭섭하다, 쉬다, 슬프다, 신경질, 압박, 약하다[1], 약하다[2], 유치하다, 죽다, 지다, 진압, 처단, 학살, 항복, 허물다

c. 앞: 미래, 전진하다

d. 뒤: 어제, 후반, 후퇴하다, 뒤떨어지다, 휴가



[그림 10] '우/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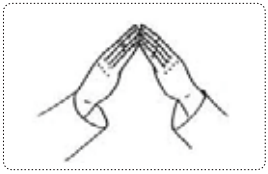


[그림 11] '비싸다/눅다'

(15)의 '우/아래' 방향 대립은 '좋은 것은 위/나쁜 것은 아래'의 은유에 해당한다. '기억하다, 관점, 명심, 박사, 사상, 신경질, 생각, 세계관, 연구, 의견' 등의 손말이 '머리'와, '관찰'이 '눈'과, '부담, 책임([그림 12])'이 '어깨'와 관련되는 것도 '은유적 손말'의 사례이다.



[그림 12] '책임'



[그림 13] '집'

한편, 부분에 해당하는 '지붕'과 '벼슬' 모양의 손말이 전체의 '집([그림 13]'과 '닭'을 지칭하는 것은 '환유적 손말'의 사례이다.

2.2.『손말학습(참고자료)(2005)』

2.2.1. 구성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은 김은희가 집필하고 2005년 8월 10일 조선장애자지원협회에서 펴낸 것으로 가로 14.6×세로 21cm, 310쪽, 연장정이다. 올림말 535개를 사진과 함께 해설을 단 것으로, 그 주요 구성은 '머리글(p. 1)', '차례(pp. 2-3)', '손말할 때 주의사항 등 6가지(pp. 4-6)', '손의 부위별명칭(pp. 7-9)', '손글자음(pp. 10-12)', '손글모음(pp. 13-15)', '왼손의 위치 설명(pp. 16-22)', '오른손의 동작 설명(pp. 23-28)', '부문별 손말과 해설(pp. 29-276)', '찾아보기(pp. 277-286)', '손말이 같은 단어들(pp. 287-309)'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글(p. 1)'에서는 "청각장애자들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 손말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손말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리용하는 단어 533개[6]를 사진과 함께 설명을 달아 쉽게 리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여 '편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부문별 손말과 해설'에서 18(+1)개 부문의 올림말 535개를 보이고 있는데, 부문별 항목 수는 [표 2]와 같다.

6) [표 2]에서 보듯이 실제로 이 사전의 올림말은 535개이다.

[표 2] 부문별 올림말의 수치

인사	가족	집	음식	시간과 요일	수자	학교	정치와 군사	날씨와 자연	동물	몸	직업	체육	경제	지명	색	동사	토	조선장애자지원협회
9	27	27	35	20	26	45	83	37	38	5	11	8	26	36	6	83	12	1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의 올림말은 18개 부문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문은 '머리글'에서 명시하였듯이 "가장 많이 리용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림 14]와 같이 올림말에 대해 왼쪽에는 손동작을 그림으로 보이고, 오른쪽에는 '안녕[명]'처럼 '올림말'과 '품사', 그리고 손동작의 그림에 따르는 [해설]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의 '올림말'과 '품사' '[해설]'은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과 동일하다.



안녕 [명]
[해설] 량손을 주먹바닥이 마주 향하게 앞으로 쥔 다음 동시에 아래로 약간 내리운다.

[그림 14] '안녕'

올림말의 [해설]에 덧붙인 기술방식 두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16)의 5개 단어의 경우 뜻풀이를 단 뒤 [해설]을 하고 있다. 곧 '아저씨' '나무[1]' '나무[2]'는 음성언어의 다의어이며 '상' '전사'는 동음이의어로서 중의성을 피히기 위하여 뜻풀이를 부가한 것이다.

(16) a. 아저씨 [명]《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말.
b. 상 [명]《밥상, 원탁따위》를 통털어 이르는 말.
c. 전사 [명] 군사호칭의 맨 아래 직위 또는 혁명과 건설에 참가한 전투적인 성원.
d. 나무[1] [명] 줄기와 가지가 단단한 바탕으로 된 여러해 사는 식물.
e. 나무[2] [명] 재목이나 목재 혹은 땔나무.

둘째, (17)의 4개 단어([그림 15-18])의 경우 [해석] 밑 (※) 란에 '떡-목적', '남포-허탕', '만-2만, 3만', '충돌하다-가렬하다' 간에 앞말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여 뒷말로 사용함을 밝히고 있다.

(17) a. 떡 [명] [해설] 왼손을 주먹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오른쪽을 비껴쥔다. 오른손을 주먹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둘째 손가락을 왼쪽으로 비껴펴서 구부린 다음 오른손을 왼손주먹 우에 약간 쳐들었다가 둘째손가락끝마디를 왼주먹 홈타기에 댔다뗐다 하는 동작을 한두번 반복한다. (※《목적》의 경우에는 오른손 둘째 손가락끝마디를 왼주먹 홈타기에 한번만 내려댄다.)

b. 남포 [명] [해설] 왼손을 주먹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오른쪽으로 비껴쥔다. 오른손을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왼쪽으로 비껴펴서 손끝들을 맞붙인다. 그리고 오른손을 왼팔굽우에 올렸다가 팔목바닥으로 왼팔굽을 두드리며 손끝을 튀기는 동작을 한두번 반복한다. (※《허탕》의 경우에는 같은 모양의 오른손가락들을 한번만 튀긴다.

c. 만 [수] [해설] 오른손을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워펴서 손가락들을 벌려 구부린 다음 손끝을 오른쪽귀둘레에 가져다댄다. (※ 2만의 경우에는 수자 2를 표시하고 3만의 경우에는 수자 3을 표시한 다음 만동작을 각각 첨가한다.)

d 충돌하다 [동 [해설] 량손을 주먹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첫째 손가락들을 우로 편 다음 량손의 손가락아래마디잔등을 한두번 부딪친다. (※《가렬하다》의 경우에는 량손의 첫째 손가락들을 우로 펴지 않고 같은 동작을 한다.)



[그림 15] '떡'



[그림 16] '남포'



[그림 17] '만'



[그림 18] '충돌하다'

2.2.2. 내용

『손말학습(참고자료)』의 주목되는 양상 세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글'에서 밝혀놓았듯이 "손말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리용하는 단어"를 18개 부문별로 선별한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18개 부문을 갈래지은 것이나 각 부문의 올림말 차례 역시 빈도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올림말 3개를 포함한 18개 부문은 (18)과 같다.

(18) ①인사: 인사, 안녕, 만나다 ②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③집: 초상화, 집, 방 ④음식: 밥, 국, 떡 ⑤시간과 요일: 요일, 일요일, 월요일 ⑥수자: 하나, 첫째, 둘 ⑦학교: 학교, 학생, 유치원 ⑧정치와 군사: 주석, 수령, 령도자 ⑨날씨와 자연: 날씨, 봄, 여름 ⑩동물: 동물, 동물원, 돼지 ⑪몸: 심장, 밸, 위 ⑫직업: 직업, 로동자, 농민 ⑬체육: 체육, 축구, 롱구 ⑭경제: 경제, 경공업, 공업 ⑮지명: 평양, 만경대, 백두산 ⑯색: 색, 붉다, 노랗다 ⑰동사: 살다, 죽다, 알다 ⑱토: -는, -에, -에게

올림말 가운데, ③의 '집'에서 '초상화', ⑧의 '정치와 군사'에서 '주석, 수령, 령도자', ⑩의 '동물'에서 '돼지', ⑬의 '체육'에서 '축구, 롱구', ⑮의 '지명'에서 '평양, 만경대, 백두산'의 올림말 및 차례는 북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중요한 단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표 2]의 올림말 수치에서 '동사'와 '토'를 제외하면 부문별 올림말의 크기는 '군사와 정치>학교>동물>날씨와 자연>지명>음식>가족·집>수자·경제>시간과 요일>직업>인사>체육>색>몸' 순인데, '정치와 군사(83개)'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리용하는 단어"이다. ⑫의 '직업'에 수록된 '로동자·농민·사무원·기술자·의사·리발·용해공·목수·재봉·작가'는 북한

의 주요 직업 세계 10개를 보여준다.

둘째, 18개 부문의 올림말에서 일관성과 선정 기준의 문제점이다. 상위어가 11개 부문에서는 올림말로 제시된 반면, '가족' '음식' '수자' '정치와 군사' '몸' '지명' '동사'는 올림말로 올려지지 않았으며, '시간과 요일'에서 올림말의 배열은 '요일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날씨와 자연'에는 '달, 별'이 올려져 있으나 '해'가 없으며, '동물'에는 '돼지, 닭, 오리, 개'가 올려져 있으나 '소'가 없으며, '몸'에는 '심장, 밸, 위, 폐, 피'의 내장기관만 올려져 있다. '경제'에서 '교육, 문화'는 상위어에 포괄되기 어려운 올림말이다. '동사'에는 '살다[동], 나쁘다[형]'를 비롯하여, '좋다[명], 말[명], 진찰[명]' 등이 포괄되어 있는데, 손말에서 '말-말하다' '진찰-진찰하다'는 동일하지만, '좋다[명]'은 오류이다.

셋째, 이 사전의 끄트머리에는 '손말이 같은 단어들'의 목록 1,369쌍을 싣고 있다. 이 목록은『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의 내용과 동일하다.

2.3.『조선손말(카드)(2009)』

2.3.1.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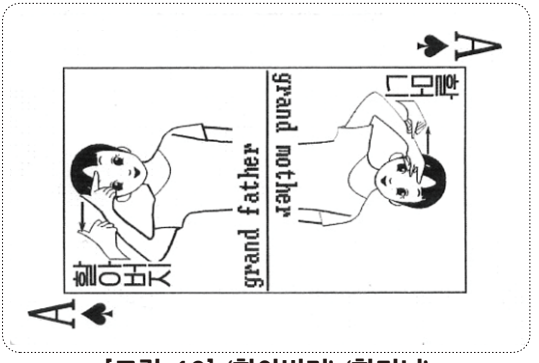
『조선손말(카드)(2009)』[7]은 주수양 외 2명이 디자인하고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이 세계농아인연맹(WFD)과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평양에서 열린 '제8회 국제 농아모임(2009.8.6.～12.)'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가로 5.6×세로 8.6cm, 54장의 트럼프 카드이다. 손말은 106개인데, JOKER 두 장은 각각 1개의 손말로 되어 있고 104개의 손말은 각각 한 장의 카드 안에 2개의 단어 쌍이 맞선 그림으로 올려져 있다.

『조선손말(카드)』의 케이스 한쪽에는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Deaf Meeting in Pyongyang, 평양국제 롱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GOOD FELLOWSHIP, 친선련환모임**, Every year in summer since 2009, 2009년 여름부터 해마다 진행"이 표기되어 있다. 이 모임에는 독일, 중국, 몽골, 일본 등 8개국에서 20여 명의 농아인들이 참석하였다.

올림말의 모습을 보면 [그림 19]와 같은데, 하나의 카드 안에 (관련된) 단어 쌍이 맞선 손말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드 안에는 '손말 그림'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조선말 표제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다.

---

7)『조선손말(카드)(2009)』을 제공해 주신 전 나사렛대학교 윤병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림 19] '할아버지' '할머니'

2.3.2. 내용

『조선손말(카드)(2009)』의 트럼프 카드 목록은 (19)와 같다.

(19) JOKER: 조선(Korea), 평양(Pyongyang)
A.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손자-손녀
2. 맏형-남동생, 맏언니-녀동생, 삼촌-고모, 남자-녀자
3. 선생님-학생, 총각-처녀, 결혼-리혼, 남편-안해
4. 가족-집, 1살-생일, 60살-100살, 이름-나이
5. 간부-지배인, 혼자-인민, 하늘-해, 달-별
6. 겨울-눈, 봄-비, 여름-번개, 가을-무지개
7. 어서-감사하다, 있다-없다, 미안하다-일없다, 좋다-나쁘다
8. 기쁘다-슬프다, 노래부르다-춤추다, 힘들다-휴식하다, 주다-가지다
9. 마시다-귀, 배부르다-배고프다, 축배를 들자-맛있게 드십시오, 곱다-밉다
10. 아침밥-점심밥, 식당-저녁밥, 맛있다-맛없다, 재미있다-재미없다
J. 밥-김치, 과일-남새, 고기-물고기, 빵-사과
Q. 건강하다-앓다, 친구-동무, 젊다-늙다, 크다-작다
K. 세계-동물, 보고싶다-다시 만납시다, 화산-공기, 물-불

(19)에서 JOKER는 '조선(Korea)', '평양(Pyongyang)' 각각이 단독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3벌은 맞선 손말 그림이 네 가지 문양(♠♥♣♦)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JOKER 조선(Korea)'은 청색의 한반도 지도와 붉은색 글자,

‘JOKER 평양(Pyongyang)’은 검은색의 소녀 그림과 글자, 그리고 카드 13벌에서 두 문양(♠♥), 예컨대 “A ♠ 할아버지 grand father ⇌ A ♠ 할머니 grand mother”는 검은색, “A ♥ 아버지 father ⇌ A ♥ 어머니 mother”는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20)의 손말 카드 54장의 손말 106개에 나타난 맞선말의 관계는 7종류이다. 그중 (20a)의 대립어 34쌍, (20b)의 유의어 2쌍, (20c)의 부분-전체어 1쌍은 좋은 의미관계를 이룬다. 그 반면, (20d)의 관련어 3쌍, (20e)의 인사어 4쌍, (20f)의 수식관계어 8쌍은 의미장을 이루며, (20g)의 ‘마시다-귀’는 의미적 관련성이 전혀 없다.

(20) a. 대립어(반의어)(34쌍):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손자-손녀, 맏형-남동생, 맏언니-녀동생, 삼촌-고모, 남자-녀자, 선생님-학생, 총각-처녀, 결혼-리혼, 남편-안해, 60살-100살, 혼자-인민, 달-별, 있다-없다, 좋다-나쁘다, 기쁘다-슬프다, 노래부르다-춤추다, 주다-가지다, 배부르다-배고프다, 곱다-밉다, 힘들다-휴식하다, 아침밥-점심밥, 맛있다-맛없다, 재미있다-재미없다, 밥-김치, 과일-남새, 고기-물고기, 빵-사과, 건강하다-앓다, 젊다-늙다, 크다-작다, 물-불
b. 유의어(2쌍): 간부-지배인, 친구-동무
c. 부분전체어(1쌍): 평양-조선
d. 관련어(3쌍): 가족-집, 이름-나이, 저녁밥-식당
e. 인사어(4쌍): 어서-감사하다, 미안하다-일없다, 보고싶다-다시 만납시다, 축배를 들자-맛있게 드십시오
f. 수식관계(8쌍): 1살-생일, 하늘-해, 겨울-눈, 봄-비, 여름-번개, 가을-무지개, 동물-세계, 화산-공기
g. 무관계어(1): 마시다-귀

2.4.『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

2.4.1. 구성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8]은 로경수 외 2명이 집필하고 2019년 7월 30

8)『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과『한국수어 & 조선손말』을 제공해 주신 윤이근 전 남도국립국악원장님과 여위숙 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님께 감사드린다.

일 조선롱맹경제문화교류사에서 펴낸 것으로, 가로 18.5×세로 26.5cm, 1,066쪽(앞부분 20쪽, 본문 1,013쪽, 뒷부분 33쪽), 견장정이다. 올림말 4,018개를 사진과 함께 뜻풀이를 단 것으로, 그 주요 구성은 '손말사전을 내면서', '손말동작표식기호', '조선손말자모편', '조선손말수자편', '차례', '김일성동지에 대한 손말', '부문별 손말', '동의어', '반의어', '찾아보기'로 이루어져 있다.

'손말사전을 내면서'에서는 "이전에 출판한 손말사전과 손말참고서의 일련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독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풍부한 손말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 4,000개를 손말로 표기하고 13개의 부문으로 묶어 롱인들이 ……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도록 하며 롱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사람들이 롱인들과의 언어적 교제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라고 하여 '사전 편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에 덧붙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매 손말동작들에 대한 표기법을 새롭게 밝혀주어 롱인들과 일반사람들이 손말동작을 정확히 리해하도록 하였으며 단어에 해당한 뜻풀이를 넣어줌으로써 롱인들이 손말과 함께 그에 대한 뜻을 함께 파악하고 널리 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독자들이 손동작의 정확성을 쉽게 구분하도록 웃부분에 매 손동작에 해당한 손모양을 넣어주었으며 앞부분에 손말자모와 수자를 넣어주어 손말을 처음으로 배우는 롱인들과 일반사람들이 손말학습의 기초가 되는 자음과 모음, 수자를 자체로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앞부분에는 부문별로 손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차례'를 주고 뒷부분에는 자모순서로 된 '찾아보기'를 줌으로써 독자들이 사전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자와 관련한 여러 상식들을 넣어줌으로써 독자들이 장애자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였다."

13개 부문별 실제 올림말 4,018개의 수치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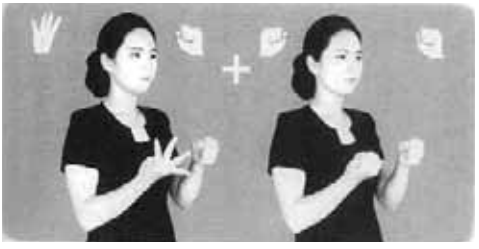
[표 3] 부문별 올림말의 수치

경제	교육	정보	국방	건설	농업	환경	문학	예술	체육	보건	상업	법률	계
510	632	140	447	342	240	270	240	188	278	230	284	217	4,018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의 올림말은 13개의 부문별, 각 부문은 자모순으로 되어 있다.[9]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림말에 대해 왼쪽에는 손모

9) '건설' 부문의 올림말 상당수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영화'는 '대동문', '유희장'은 '대성산', '인민' '유원지'는 '릉라' 다음에 올라 있다.

양과 손동작의 손말을 사진으로 보이고, 오른쪽에는 '가격[명]' "《경제》 돈으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 곧 상품의 가치가 화폐라고 하는 일반적 등가물을 통하여 표현된 것."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격 [명]
《경제》 돈으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 곧 상품의 가치가 화폐라고 하는 일반적등가물을 통하여 표현된 것.

[그림 20] '가격'

[그림 20]에서 보듯이 "웃부분에 매 손동작에 해당한 손모양을 넣어주었으며 앞부분에 손말자모와 수자를 넣어준" 것이 이 사진의 특색이라 할 만하다.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에는 '교육' '농업' 부문을 제외한 11개 부문 끄트머리에 '상식'란을 마련하여 '롱인'과 '손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데, 그 주제를 보면 (21)과 같다.

(21) ①장애자에 대한 개념과 분류 ②롱인에 대한 개념과 롱인이 되는 원인 ③롱인들이 왜 민족어를 힘들어하는가 ④일반사람과 롱인의 언어적환경 ⑤롱인들과 교제를 할 때 명심할 것은 무엇인가 ⑥롱인 고등교육에 리용되는 보조형태 ⑦우리 나라에서의 특수교육실시와 롱인들의 직업 및 문화활동[10] ⑧세계롱인연맹은 어떤 조직인가 ⑨국제롱인체육위원회 소개 ⑩롱인올림픽소개 ⑪세계손말통역위원회소개

이 가운데서 (21)의 ③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언어가 완전히 결핍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손말과 민족어의 문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손말과 민족어의 차이, 례: 민족어의 구성-고뿌+있다+책상 우에, 손말의 구성-책상+우+고뿌+있다."이다.

10) 이에 따르면 북한에 다음의 8개 롱아학교가 있다고 한다. 강원도 원산롱아학교, 황해북도 봉산롱아학교, 황해남도 봉천롱아학교, 평안북도 운전롱아학교, 평안남도 성천롱아학교, 자강도 시중롱아학교, 함경남도 함흥롱아학교, 함경북도 삼봉롱아학교.

2.4.2. 내용

『손말사전(부문별손말)』의 주요 내용을 5가지 측면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첫째, 4,018개의 어휘를 13개 부문별로 펴낸 북한 최신의 대표적 손말사전이다. [표 3]에서 부문별 차례와 함께 올림말의 크기는 우선 순위 및 그 분야의 활성화 정도를 가리키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문별 차례는 '경제>교육>정보>국방>건설>농업>환경>문학>예술>체육>보건>상업>법률' 순이며, 부문별 올림말의 크기는 '교육>경제>국방>건설>상업>체육>환경>농업·문학>보건>법률>예술>정보' 순인데, 두 지표가 상관성을 띠지는 않는다.

둘째, 부문별 손말사전으로서 상위어, 즉 부문의 명칭이 하위어, 즉 부분의 구성원을 망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요 사례는 (22)의 '경제' '교육' '문학'에서 나타난다. (22a, b)에서 보듯이 '요일'은 '경제'와 '교육'에 들어 있으며, (22c)의 '문학' 부문 용례들은 '예술' 부문이 적합하다.

(22) a. 경제: '밤색' 등 색, 고열, '금요일' 등 요일, 기자, 대통령, 초상화, 타락, 탐구, 해명, 야심, 일편단심
b. 교육: 가늘다, 가다, 가만히, 경사, 경솔하다, 그늘, 그대로, 그리고, 그제, 과부, 광복, 권(등수에 들어가는 범위), 달다(맛), 맵다, -만, 만병초, 목침, 상가집, 현관문, '화요일' 등 요일
c. 경희극, 단막극, 련곡, 륜무, 배우, 석고상, 수예, 작곡, 조각, 희극, 연극, 연출, 예능

셋째, 이 사전에는 남북한 수어 또는 손말의 이질화 현상으로 (23)의 사례에서 보듯이 표준어와 형태가 다른 손말이 적지 않다.

(23) a. 경제: 보이라, 불도젤, 블로크, 비날론
b. 교육: 걸그림, 규률, 도리여, 량심, 소학교, 수업종, 참분수, 탁아소, 테제, 뻐스
c. 정보: 그라프, 계렬, 비루스, 프로그람, 화일, 인터네트
d. 국방: 경땅크, 기발, 려단, 령활하다, 뢰격, 원쑤
e. 건설: 리베트, 몰탈, 스레트, 탕크
f. 농업: 닭알, 도마도, 뚝, 뜨락또르
g. 환경: 거부기, 바다가, 에네르기

h. 문학: 가악, 격토, 머리글
i. 예술: 쟈즈, 트럼베트, 안삼불
j. 체육: 너비뛰기, 바줄당기기, 휴계실, 휘거, 쌈보
k. 보건: 비루스, 취장, 어금이
l. 상업: 고뿌, 샴팡, 스케트, 빠다, 쨈
m. 법률: 기률, 주대, 테로

넷째, 이 사전에는 표준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어가 적지 않은데, 그 주요 사례는 (24)의 286개이다. 이 가운데는 '자(1)' '후비' '약전' '원사' '기동' '기정(의)' '배경' '수신' '지령' '병실' '본때' '붉다' '사관' '문집' '강우기' '로작' '대기' '경질' '부루'처럼 동일한 형태에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것은 남북한 수어 또는 손말의 이질화가 심화된 증거로서, 이질화가 큰 분야는 '건설(70)' '체육(47)' '교육·정보·국방(27) 분야이다.

(24) a. 경제(16): 경로동, 돈자리, 대진군, 력일수, 만가동, 볼반, 비날론, 비단천, 벨트콘베아, 성(내각앞에 책임을 지는 국가주권의 부문별중앙집행기관), 쇠밥, 자력자강, 주색금, 콕스, 행표
b. 교육(27): 가창대, 거꿀명제, 교양론, 글뒤주, 녀맹, 단위원장, 도화공작, 독보, 데림분수, 류다른, 분단위원장, 상학, 소년회관, 소조, 자(1일정한 지역에 살며 어떤 사회를 이루는 구성성원), 직맹, 참분수, 총화, 학생물림, 학직, 현실체험, 후비, 약전, 열성자, 애육원, 원사
c. 정보(27): 경사체, 기동, 기정(의), 기자, 기억기, 과제띠, 날자(거래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능력(컴퓨터가 실행하는 속도 및 여러 가지 기능의 가동 능률), 내보(공개되지 않은 내적인 통보), 단추(자기에게 할당된 일정한 기능이나 동작을 조정하는 장치의 물리적 혹은 론리적부분품이다), 등록부, 대화칸, 말단, 봉사기, 배경, 수산기, 수신(국부망이나 전화선로와 같은 외부통신체계로부터 자료를 접수하여 서류로서 자료를 보관하는 것), 자원공유, 지령, 지름길, 재기동, 탈퇴, 호출, 흘림띠, 따내다, 오유, 임풀스
d. 국방(27): 경량견인포, 경무, 경무원, 경땅크, 군무생활, 군민일치, 군종, 군의소, 대포밥, 련공, 령장, 로농적위군, 무장장비, 반땅크수류탄, 병실(군인들이 생활하는 방), 본때, 붉다, 사관, 상급병사,상좌, 상위, 수직리착륙비행기, 자동보총, 자행포, 전호, 직승기, 원쑤

e. 건설(70): 4.25문화회관, H/T/V/ㄱ/ㄴ/ㄷ형강, 김일성광장, 경피문, 고려호텔, 골탄, 국제친선관람관, 굴토기, 개선청년공원, 괴면, 과학기술전당, 동평양대극장, 대동문영화관, 대동문, 대성산유희장, 대성산, 려명거리, 룡두기와, 리베트, 만경대물놀이장, 만경대유희장, 만수대예술극장, 만수대, 만수대의사당, 말뚝마치, 망홀, 모란봉극장, 못사슬걸개, 문집, 물뿌림차,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 메아리사격관, 발포수지, 빙상관, 사판, 삭목, 삼지연, 숨은못, 신축식문, 쇠동발, 자름면도, 자리쇠, 주체사상탑, 창가림, 창전거리, 청류관, 콘베아, 탑식건물, 토수기와, 트라스, 평토기, 평양대극장, 평양국제문화회관, 향만루, 현수문, 형성안, 환기와, 뚜짐기계, 빨대, 옥류관, 옥외가구, 유기건재, 유람도, 은하과학자거리, 인민극장,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위성과학자지구

f. 농업(13): 가두배추, 강우기(밭에 물을 뿌려주는 기계), 개꼬리(강냉이의 수꽃이 피는 꽃이삭), 게사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의 한가지), 다락밭, 만풍년, 모살이, 부침땅(농장물을 심어 가꾸는 땅), 분조, 주체농법, 쥐무우(붉은 봄무우를 달리 이르는 말), 양벗, 옥파

g. 환경(14): 등속운동, 락랑구역, 력포구역, 룡, 사동구역, 삼석구역, 서성구역, 석수, 선교구역, 순안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형제산, 형제산구역

h. 문학(10): 노죽(남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말, 표정, 몸짓, 행동 등을 일부러 지어내여 하는 것), 로작, 명가, 문의(글의 뜻), 맺음토, 바꿈토, 복수토, 속대사, 조선화, 에두름

i. 예술(7): 교예, 개시악, 늘크기, 대기, 통소리, 팔쓰기, 흔들기

j. 체육(47): 가슴멈추기, 감아잡기, 거꾸로서기, 걸어치기, 교치성, 금장갑상, 금축구화상, 금뽈상, 기상체조, 기전, 개인방어, 계시원, 귀환점, 나비헤염, 날치기사격, 날파람, 누운헤염, 네번치기, 도립회전, 도전경기, 등헤염, 락하산경기, 륜운동, 머리받기, 모터찌클, 문선, 물크키, 미끄러져빼앗기, 밀기, 밀어치기, 발배구, 살짝공, 손다치기, 셈세기, 쉴링, 조마, 쥐가일다, 처넣기, 철추, 추켜올리기, 탄력망, 판공넣기, 호케이, 끌어올리기, 끼워잡기, 빼몰기, 뺄헤염

k. 보건(5): 간종, 점적, 피형, 이삭, 이삭기

l. 상업(19): 가시장, 건발, 경질, 극동기, 농마, 달린옷, 당과류, 데트론, 레드등, 부루, 백합과자, 살결물, 소랭이, 신젖, 즉석국수, 콤팍등, 호

집개, 옥당, 옥쌀
m. 법률(4): 량정, 량해문, 법단, 융화묵과

다섯째, 이 사전에는 뒷부분에 '동의어' 577개를 싣고 있다. '동의어'는 (25)와 같이 그 양상이 다양한데, (25a)의 동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25b)의 내포나 외연이 다른 경우, (25c)의 의미가 다른 경우를 망라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동의어'는 음성언어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손말의 동의어가 아니다. 엄격히 말해서 '손말'에는 동의어가 존재하지 않고, 닮음이 다소 인정되는 유의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6)의 '전진'의 반의어로 기재되어 있는 '퇴각-후퇴', '(개인)'의 반의어로 기재되어 있는 '단체-집단'은 '손말'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닮음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의어라 할 수 있다.

(25) a. 기초=초석, 토대, 바탕, 터
b. 결석=결근, 구름다리=공중다리, 굴다리, 고가교, 육교
c. 미신=신앙

(26) 전진/퇴각(국방부문)-후퇴(국방부문), (개인)/단체(체육부문)-집단(경제부문)

여섯째, 이 사전의 끄트머리에는 '반의어' 266개를 싣고 있다.[11] '반의어'는 손말의 대립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인데, 그 실상은 (27)과 같다. 그중『손말사전』에서 대립이 성립되는 사례는 (27a, b)의 51쌍인데, (27a)는 [그림 21]의 '가다/오다'처럼 원형적인 손말 반의어 22쌍이며, (27b)는 비원형적인 손말 반의어 29쌍이다. (27c)는 [그림 22]의 '가깝다/멀다'와 같이 음성언어의 반의어가 이 사전에 올라 있지만 손말 대립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 47쌍이다. (27d)는 '가입/탈퇴'처럼 '가입'은 조직체의 성원으로 기술한 반면 '탈퇴'는 정보의 프로그램 실행으로서 반의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말에서도 반의어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 4쌍이다. (27e)는 '가늘다/(굵다)'에서 '(굵다)'처럼 ( )의 단어가 올림말에 빠져 있는 사례 147쌍이며, (27f)는 '(거짓/진실 참)'처럼 올림말 자체가 이 사전에 없는 사례 17쌍이다. 요컨대 (28)은 음성언어의 관점에서 반의어일 뿐, 손말의 반의어는 (27a, b)의 사례에 국한된다.

11) '반의어'의 목록 가운데 '죄-공'은 '벌금-상금' 다음에, '복수-단수' 앞에 실려서 자모순의 일관성에 어긋난다.

(27) a. 가다/오다, 고혈압/저혈압, 고음/저음, 급상승/급강하, 나가다/나오다, 눅다/비싸다, 단식/복식, 득점/실점, 들어가다/들어오다, 머리글/맺는 글, 미래/과거, 밀물/썰물, 상류/하류, 설다/익다, 수신/송신 발신, 전진/퇴각 후퇴, 직접/간접, 퇴각/전진 (진격 진공), 편안/불편 불안, 헤여지다/만나다 (모이다), 열다/닫다

b. 가볍다/무겁다, 가지다/(내주다) 버리다 없다, 걱정/안심, 곱다/밉다 나쁘다 (거칠다), 개막식/폐막식, 도착/떠나다 (출발하다), 리득/손해 손실, 만나다/헤여지다, 멸시/숭배 존경, 분자/분모, 분해/결합, 상수도/하수도, 서장/종장, 선배/후배, 전반전/후반전, 전방/후방, 주심/부심, 증가/(감소) 축감, 지상/지하, 지옥/락원 천당, 축소/확대, 틀리다/맞다 (옳다), 파괴/건설 (개건 재건), 혁신/보수, 후방/전방 전선 전초, 확대/축소, 짝수/홀수, 인수/인계, 입원/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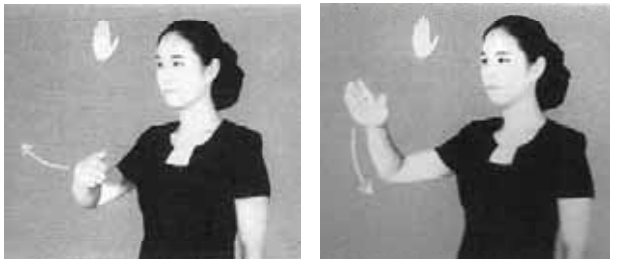
c. 가깝다/멀다, 간단하다/복잡하다, 거짓말/정말 참말, 건강/허약 쇠약, 결과/원인, 결석/출석, 경공업/중공업, 공격/방어, 공급/수요, 교전/정전 휴전, 구매/판매, 남자/녀자, 다무적/쌍무(적), 리론/실천, 맞다/틀리다, 무효/유효, 바깥/안, 발동/제동, 부유하다/가난하다 구차하다 못살다 빈곤하다, 분배/몰수, 배우다/가르치다, 살다/죽다, 수출/수입, 자연/인공, 작다/크다, 적군/아군, 접수/거절, 중독/해독, 제외/망라 포함, 죄/공, 참가/탈퇴 회피, 초식/육식, 출혈/지혈, 친구/원쑤 적 적수, 채권/채무, 크다/작다, 타살/자살, 특수/보통 보편 공통 일반, 퇴장/입장 참석 등장,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현실/리상, 흡수/배출, 흥분/진정 제지 억제, 안심/걱정 근심, 유효/무효, 예속/자주(성) 자유 해방 독립, 위험/안전

d. 가입/탈퇴, 고전/현대, 나쁘다/좋다, 집중/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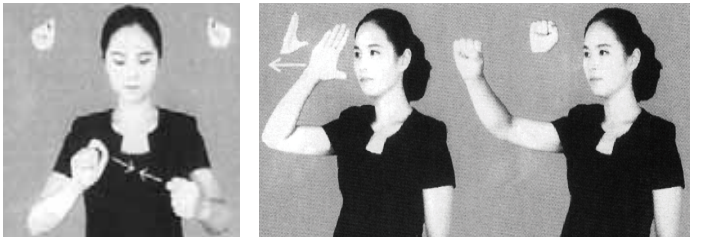
e. 가늘다/(굵다), (가담)/불가담, 가루/(덩어리), 가지런하다/(들쑹날쑹하다), 강하다/(약하다), 같이/(달리), 거만/(겸손), 거절/(수락 승낙 허락 응낙), 건조/(습하다 누긋하다), 걸작/(졸작), 견실하다/(불견실하다), 결단/(우유부단), 경로동/(중로동), 고급/(저급), 고랑/(이랑), 고속/(저속), 고생/(호강), 고집/(양보), 공세/(수세), 구부리다/(펴다), 군수/(민수), 군용/(민용), 굽히기/(펴기), 그늘/(양지), 근거리/(원거리), 근면/(태만), 근시/(원시), 긍정/(부정), 긍지/(수치), 기억/(잊다 까맣다 망각하다), 긴장/(해이 안일), 개학/(방학), 계속/(중단 중지), 과산/(저산), 관심/(등한), 광명/(암흑), 낡다/(새롭다), 남극주/(북극주), 낮/(밤), 낯

설다/(낯익다), 내성적/(개방적), 다르다/(같다 그리하다), 다층/(단층), 단결/(분렬), 단체 집단/(개인), 답답하다/(후련하다), 더/(덜), 도매/(소매), 락제/(급제), 련공/(반공), 령리하다/(미욱하다 미련하다), 롱담/(진담), 마지막/(처음), 만성/(급성), 먼저/(나중), 명랑하다/(침울하다 우울하다), 모르다/(알다), 무료/(유료), 미안하다/(당당하다 떳떳하다), 민물/(짠물), 메우다/(파다 뚫다), 바쁘다/(한가하다), 반대/(찬성), 발간/(폐간), 벌금/(상금), 복종/(불복), 부족(하다) (충족하다 풍족하다)/(유족하다), 부끄럽다/(떳떳하다 자랑스럽다), 불가능/(가능), 불경기/(호경기), 불만/(만족), 불편/(편리), 비법/(합법), 배경/(전경), 사랑/(증오), 삭제/(첨가), 상/(벌), 선불/(후불), 선진/(후진 락후), 설치/(해체), 성공/(실패), 소낙비/(보슬비), 소비/(축적), 수공업/(기계공업), 수재/(둔재), 슬픔/(기쁨), 승인/(부인), 시작/(끝내다 마치다 결속하다), 실업/(취직), 싱겁다/(짜다), 새끼/(엄지), 자랑/(수치), 자필/(대필), 잘/(잘못), 장탄/(퇴탄), 전반/(부분), 전승/(전패), 전쟁/(평화), 전/(후), 정의/(부정의), 조업/(폐업), 주역/(단역), 중시/(경시), 증강/(감쇠 감축), 지름길/(돌음길 두름길), 진급/(류급), 진보/(보수 락후 퇴보), 창조/(모방 모작 본따기 교조), 천천히/(빨리 급히), 침략/(불침략 불가침), 칭찬/(비난 질책 나무람 꾸중), 최고/(최저), 최종/(최초), 통하다/(막히다), 통일/(분렬), 편견/(공평), 편심/(정심), 풍년/(흉년), 풍작/(흉작), 피해/(가해), 패배/(승리 타승), 하부/(상부), 허위/(진실), 형식/(내용), 후대/(선대), 해임/(임명), 화목/(반목), 뻗치다/(수그러들다), 쌍방/(일방), 암담하다/(광휘롭다 창창하다), 압축/(팽창), 야간/(주간), 약속/(파약), 연장/(단축), 열기/(랭기 찬김), 영예/(수치 치욕), 용맹/(비겁), 운동/(정지), 응답/(질문 물음 질의 침묵), 이동/(고정), 일반/(개별 특별), 일용품/(기호품), 입력/(출력), 입학/(출학 퇴학), 애국/(매국), 위하다/(숙보다 깔보다 얕보다 해치다 해하다), 원가/(정가 실비)

f. (가물/장마), (가파롭다/탄탄하다 평평하다), (거짓/진실 참), (려명/황혼), (리륙/착륙), (례의/무례), (만기/조기), (명예/수치), (복수/단수), (부식물/주식물), (중심/주변), (척박/비옥), (쓰다/달다), (이상/정상), (있다/없다), (애호/혐오), (원쑤/벗)



[그림 21] '가다/오다'



[그림 22] '가깝다/멀다'

일곱째, 도상성, 환유, 은유이다. '도상성(iconicity)'은 손말과 손말이 가리키는 지시물의 형태가 닮은 것으로, 이 사전에서 이러한 손말들이 매우 많은데, (28)의 '모양'과 '동작'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다.

(28) a. 모양: 절단기, 넥타이, 삼각형, 거울, 계단, 낫, 번개, 벼락, 비, 가로수, 버섯, 하마, 악어, 책, 나팔, 권투, 가위
b. 동작: 나르다, 구부리다, 기와, 도장, 가래질, 갈다, 김매기, 모내기, 파종, 번개, 벼락, 비, 가야금, 장고, 피아노, 자전거, 기침, 체포

(27a)의 원형적인 손말 대립어 22쌍은 '도상성'을 잘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29)에서 보듯이 '방향'의 변인을 중심으로 한 고저 7쌍, 전후 5쌍, 개폐 2쌍, 그리고 손모양의 최소대립 3쌍, 가감에 따른 3쌍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서 원형적인 대립은 동일한 부문 17쌍에서 실현되며, '수신(정보부문)/송신(국방부문)'의

경우도 유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9) a. 고저(7): 고혈압/저혈압(보건부문), 고음/저음(예술부문), 급상승/급강하(국방부문), 밀물/썰물(환경부문), 상류/하류(환경부문), 눅다/비싸다(상업부문), 편안/불편(교육부문)
b. 전후(5): 가다/오다(교육부문), 나가다/나오다(교육부문), 들어가다/들어오다(교육부문), 전진/퇴각(경제-국방부문), 후퇴(국방부문), 미래/과거(건설-교육부문)
c. 개폐(2): 열다/닫다(교육부문), 헤여지다/만나다(교육부문)
d. 최소대립(3): 단식/복식(체육부문), 득점/실점(체육부문), 머리글/맺는글(문학 부문)
e. 가감(3): 익다/설다(농업부문), 수신/송신 발신(정보-국방부문), 직접/간접(경제-국방부문)

방향의 대립은 은유 또는 은유적 도상성의 좋은 보기인데, (30a) "위는 좋은 것이며, 아래는 나쁜 것이다"([그림 23]의 '존경/멸시' 참조), (30b)의 "앞은 미래이며, 뒤는 과거이다"의 손말 은유이다. 한편, (30c)의 사례는 신체어 '머리'와 관련된 손말로서 "머리는 두뇌이다"의 손말 은유이다.



[그림 23] '존경/멸시'

(30) a. 위: 기백, 최고, 풍작, 숭배, 존경, 건설, 진학, 아침, 발달
아래: 복종, 슬픔, 흉년, 패배, 멸시, 파괴, 자퇴, 쇼크
b. 앞: 미래, 전망, 활로
뒤: 과거, 어제

c. 관찰, 령리하다, 지능, 깨닫다, 원리, 과학, 천재, 느낌, 심리, 전술, 건망, 기억, 뇌수, 불면, 빈혈, 신경, 정신병, 혼수, 악몽

한편, 대상의 특징적인 한 부분으로 대상을 나타내는 '환유'의 보기인데, (31)의 '벼슬→닭[그림 24]', '코→돼지', '지붕→집[그림 25]', '뿔→양', '수염→염소'에서 보는 바와 같다.

(31) 닭, 돼지, 집, 양, 염소



[그림 24] '닭'



[그림 25] '집'

3. 북한『손말사전』의 특성

3.1. 올림말의 배열방식

북한 손말사전 4종의 올림말 배열방식은 '자모순' '부문별' '트럼프 카드'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모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의 배열은 [표 4]의『조선말대사전(1992)』의 자모 순서와 같다.

[표 4]『손말사전(롱아학교용)』의 배열 순서

자음 순서	ㄱㄴㄷㄹㅁㅂㅅㅈㅊㅋㅌㅍㅎㄲㄸㅃㅆㅉ
모음 순서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ㅐㅒㅔㅖㅚㅟㅢㅙㅞ

한편,『한국수화사전(2005)』[12]의 배열은 [표 5]의『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자모 순서와 같다.

[표 5]『한국수화사전』의 배열 순서

자음 순서	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ㅇㅈㅉㅊㅋㅌㅍㅎ
모음 순서	ㅏㅐㅑㅒㅓㅔㅕㅖㅗㅘㅙㅚㅛㅜㅝㅞㅟㅠㅡㅢㅣ

[표 4, 5]에서 보듯이『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과『한국수화사전(2005)』은 자모 순서가 다르고, 손말사전의 경우 'ㅇ'이 빠져 있으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두 사전에서 올림말의 순서가 상당히 다르다.

'부문별'로 구성된『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은 18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 및 중요도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은 1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은 자모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의 18개 부문과 [표 2]의 13개 부문에 대한 설정과 배열 순서는 상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손말(카드)(2009)』은 트럼프 카드에서 관련된 수어가 맞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JOKER와 14벌의 카드 배열은 중요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준이 뚜렷하지는 않다.

한편, 한국 수어사전의 경우『한국수화사전(2005)』은 위에서 보았듯이 자모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웹 기반『한국수어사전(2016)』[13]은 '일상생활', '전문용어', '문화정보' 수어로 대별된다. 그중 '일상생활 수어'는 16개 부문의 의미범주별로 제시되어 있고 범주 간에 배열 기준은 없으며, 각 의미범주 안에서는 조회 순, 정확도 순, 수형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국농아인협회의『한국수어(2021)』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 1,350개를 선정하여 (32)의 20과로 구성하였다.

---

12)『한국수화사전(2005)』은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엮고 2005년 3월 31일 도서출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펴낸 것으로, 가로 19.1×세로 26.5cm, 1,723쪽, 견장정이다. 이 사전의 올림말은 6,812개이며, 동일한 내용으로 간행 주체가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에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로 바뀌어 2007년 6월 20일 개정판이 나왔다.

13)『한국수어사전(https://sldict.korean.go.kr/)』과 북한 손말사전에 대해 도움말을 주신 국립국어원 정혜선 연구사님께 감사드린다.

(32) 인사, 가족, 요일·시제, 자연, 학교(1), 학교(2), 교통 및 통신, 인체, 병원, 운동, 종교, 나라, 동물, 식물·성씨·색상, 음식, 직업, 사회 일반, 경제, 흔히 쓰는 단어들, 혼동되기 쉬운 단어들

요컨대 북한 손말사전의 올림말 배열 방식은 '자모순' '부문별' '트럼프 카드'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문별'의 경우 각 부문이 사용빈도 및 중요도 순, 그리고 자모순으로 되어 있다. '자모순'은 이른바 '가나다 사전'과 같이 이해에 효율적이며 '부문별'은 갈래사전 또는 분류사전과 같이 표현에 효율적이다. 기초적인 손말을 한글과 영어로 병기한 휴대용 '트럼프 카드'는 국제 농아 모임과 같이 다국적 모임에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어휘로서 의사소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발상이라 하겠다.

3.2. 손말 동작의 기술 방식

손말 동작의 기술 방식을 보기로 한다.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은 손의 구조를 그림으로 주고 올림말의 [품사]와 [해설]란에 손동작 그림의 설명을 달았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다음 동작의 방향을, '점선(…)'은 다음 동작을 표시하였다.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은 손동작을 사진으로 담고 올림말의 [품사]와 [해설] 란에 손동작 사진의 설명을 달았다. 사진에서 '화살표(→)'는 다음 동작의 방향을 표시하였다. 『조선손말(카드)(2009)』은 하나의 카드 안에 손의 구조를 그림으로 주고 올림말을 한글과 영어로 병기하였다. JOKER의 '조선(Korea)', '평양(Pyongyang)'은 단독 카드로 소녀의 그림을, 나머지 13벌은 소년을 그린 맞선 모양의 손말 그림을 배치하고 있는데, 한 벌의 카드 글씨를 한 장은 검은색으로 다른 한 장은 붉은색으로 인쇄하였다.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은 오른쪽에 '올림말'을 싣고 [품사]와 뜻풀이를 제시하였으며, 왼쪽에 손동작의 사진과 윗부분에 손동작의 손 모양을 넣어 주고 있다. 실제로 '손 모양'은 '감, 소, 짝수, 개, 교잡, 색맹, 장애, 왁찐, TV, 송편, 신선로, 저울, 잉크, 도박, 억울하다' 등 손말 사진의 불투명한 상태를 보완해 준다.

한편, 한국 수어의 경우 『한국수화사전(2005)』은 [그림 26]의 '나라'에서 보듯이 왼쪽에 올림말을 중심으로 품사 정보의 '어법', '뜻풀이', '용례', '어원 정보'를 제시하고 오른쪽에 '수어 그림', '수어 설명'의 6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나라 명

한 국토에서 하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의 조직.
예 나라를 지킨다.
[지구의를 돌리는 동작]
=국가.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다.

[그림 26] '나라'

웹 기반『한국수어사전(2016)』은 왼쪽에 동영상을 제시하고 오른쪽에 '수형 사진'과 '수형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생활 수어>인간>못생기다'의 올림말 '못생기다'를 보면 [그림 27]과 같으며,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못생기다, 못나다, 추하다, 밉다'를 덧붙이고 있다.



[그림 27] '못생기다'

한국농아인협회의『한국수어(2021)』는 올림말에 대해 '인사(人事, greeting)'처럼 '한글(한자, 영어)'를 병기하고 손동작을 설명하며, 왼쪽에 천연색의 손동작 사진을 싣고 있다.

요컨대 북한 손말사전의 손말 동작 기술은 그림과 사진, 손동작 해설과 단어 뜻풀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말사전의 흑백사진은 해상도가 문제시되며,『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의 경우 단어의 뜻풀이보다는 손말 동작의 설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3. 표제어 수

북한 손말사전의 올림말을 보면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은 2,395개,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은 535개, 『조선손말(카드)(2009)』는 106개,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은 4,018개가 실려 있다.

한편, 한국 수어사전의 올림말을 보면 『한국수화사전(2005)』은 6,812개의 표제어를 싣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국립국어원에서 개통한 『한국수어사전(https://sldict.korean.go.kr/)』은 기존의 한국수어 웹사전과 모바일 앱 사전 등을 통합하여 새롭게 정비한 사전으로, [표 6]과 같이 표제어 수는 15,542건(2024.11.1. 기준)이며, 그중 '일상생활 수어'는 3,669건이다. 한국농아인협회의 『한국수어(2018)』는 일상생활에서 빈도가 높은 1,350개의 수어를 수록하고 있다.[14)]

[표 6]『한국수어사전』 표제어 수(2024.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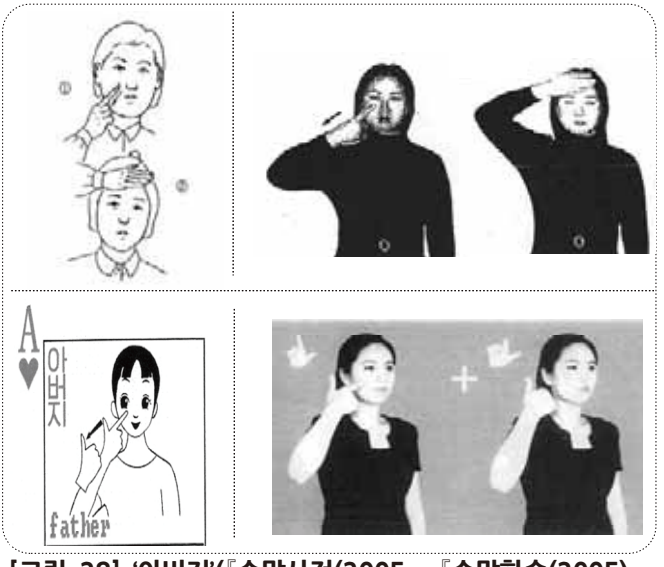
일상생활 수어(3,669건)		전문용어 수어(10,281건)		문화정보 수어(1,592건)	
인간	328	법률	508	국립 중앙 박물관	548
삶	252	교통	519	국립 민속 박물관	67
식생활	137	의학	1,054	국립 경주 박물관	100
의생활	44	정보통신	575	국립 공주 박물관	40
주생활	61	불교	1,117	국립 부여 박물관	62
사회생활	316	천주교	1,005	국립 진주 박물관	50
경제생활	104	기독교	1,297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90
교육	70	국어 교과 용어	1,322	국립 과천 과학관	60
나라명 및 지명	200	경제	1,343	국립 광주 박물관	80
종교	70	정치	1,541	국립 김해 박물관	60
문화	93			국립 대구 박물관	50
정치와 행정	66			국립 전주 박물관	61
자연	45			국립 제주 박물관	60
동식물	62			국립 청주 박물관	60
개념	330			부산 시립 박물관	80
기타	1,545			국립 나주 박물관	64
				국립 춘천 박물관	60

14) 올림말의 다른 사례로서,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4)의 『일본어-수화사전』은 8,320개, (2004)의 『한국어-스페인 수화사전』은 3,500여 개, (2008)의 『한국어-미국수화사전』은 7,138개이다.

3.4. 손말 동작의 대비

북한 손말사전의 올림말에 대한 손말 동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올림말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하고 손동작을 해설하거나 올림말의 뜻풀이를 넣는 등 사전마다 그 양상이 개성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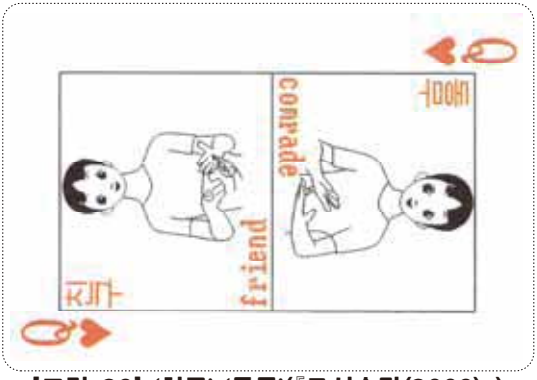
올림말 '아버지'에 대한 손말을 대비하면 [그림 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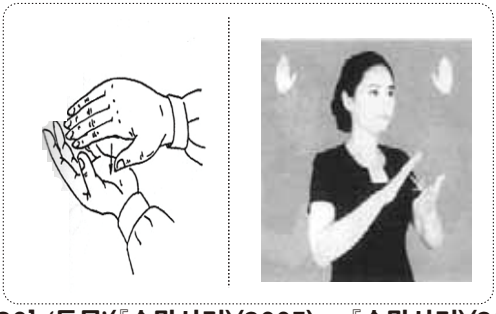
[그림 28] '아버지'(『손말사전(2005』, 『손말학습(2005)』, 『조선손말(2009)』, 『손말사전)(2019)』)

'아버지'의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과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의 손동작 해설은 "①오른손을 주먹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둘째 손가락을 우로 펴서 손가락끝바닥을 오른뺨에 대고 뒤로 약간 스쳐내리운다. ②오른손을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뉘워펴서 손바닥을 이마 웃부분에 가볍게 댄 다음 머리카락을 약간 스치면서 머리 뒤부분까지 옮겨 남자의 머리모양을 나타낸다."이다. 그런데 『조선손말(카드)(2009)』은 위 ①과 같으며,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은 ①은 같으나 ②의 손동작이 다르다.

손말사전에서 손동작이 다른 또 다른 사례이다. 『조선손말(카드)(2009)』의 '친구(friend)-동무(comrade)'는 [그림 29]에서 보듯이 별개의 손말이다.



[그림 29] '친구' '동무'(『조선손말(2009)』)



[그림 30] '동무'(『손말사전)(2005)』, 『손말사전)(2019)』)

그 반면 [그림 30]의 '동무'는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과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의 손말인데, 이 두 사전에는 '친구'가 올림말로 등재되지 않았다.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의 '손말이 같은 단어들'에 따르면 '동지[명]=동무', '친구[명]=동무', '친우[명]=동무'로 기술되어 있어서 '동지=동무=친구=친우'는 손말이 같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친구'와 '동무' 간에 의미 차이가 존재하므로,[15] 손말을 달리한 『조선손말(카드)(2009)』가 주목된다.

15) '동무' ①《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②같이 어울리여 사귀는 사람. ③일반적으로 남을 무간하게 부를 때에 쓰는 말. '친구' ①친하게 사귀는 벗 ②상대편을 스스럼없게 여기며 무간하게 부를 때 이르는 말.

‘큰물’은 [그림 31]의『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과『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에서 손동작에 차이가 있는데, 전자에서는 1형태인 반면 후자에서는 2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의 ‘손말사전을 내면서’에서 “이전에 출판한 손말사전과 손말참고서의 일련의 부족점을 극복하고…”의 보기가 될 만하다.



[그림 31] ‘큰물’(『손말사전(2005)』,『손말사전(2019)』)

3.5. 의미와 의미관계

손말사전의 의미와 의미관계를 보기로 한다.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의 경우 (10)의 ‘가을[1]’ ‘가을[2]’와 같이 다의어 10쌍, 그리고 (11)의 ‘갈다[1]’ ‘갈다[2]’와 같이 동음이의어 21쌍이 실려 있지만, 손말에는 다의어나 동음이의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전에는 끄트머리에 ‘손말이 같은 단어들’ 1,369쌍을 덧붙이고 있는데, ‘가정=가족’, ‘간사하다=깜찍하다’, ‘기념관=박물관’ 등에서 보듯이 그 외연과 내포의 동의성 여부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손말에서는 동의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의어 또는 대립어 역시 손말에서는 음성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13)에서 보듯이 ‘가볍다/무겁다’와 같이 대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곱다/밉다’와 같이 좋은 대립이 성립되는 경우, ‘가깝다/(멀다)’와 같이 손말의 짝이 수록되지 않아 대립 여부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 이 사전에는 손말의 형태와 의미 간에 상관성을 갖는 도상성, 환유, 은유의 사례가 풍부한데, 이것은 손말의 올림말이 2,395개나 될 뿐 아니라 손동작의 그림이 뚜렷하여 그 상관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이 사전의 올림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535개의 단어를 18개 부문에서 선

별한 것으로, ‘동사’와 ‘토’를 제외하면 부문별 올림말의 크기는 ‘군사와 정치>학교>동물>날씨와 자연>지명>음식>가족·집>수자·경제>시간과 요일>직업>인사>체육>색>몸’ 순이다. 그중 ‘정치와 군사(83)’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리용하는 단어”이며, ‘직업’에 수록된 ‘로동자·농민·사무원·기술자·의사·리발·용해공·목수·재봉·작가’는 북한의 주요 직업 유형이다. ‘집’에서 ‘초상화’, ‘정치와 군사’에서 ‘주석, 수령, 령도자’, ‘동물’에서 ‘돼지’, ‘지명’에서 ‘평양, 만경대, 백두산’의 올림말 차례는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이용하는 단어로서 주목된다. 이 사전의 끄트머리에는 ‘손말이 같은 단어들’의 목록을 싣고 있다. 올림말의 수치가 535개로서 올림말이 2,395개인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의 목록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조선손말(카드)(2009)』은 손말 카드 54장에 손말 106개를 싣고 있다. 한 장의 카드 안에 맞선말을 대칭적으로 싣고 있는데, 대립어 34쌍, 수식관계어 8쌍, 인사어 4쌍, 관련어 3쌍, 유의어 2쌍, 부분-전체어·무관계어 1쌍 순이다.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의 경우이다. 이 사전에는 끄트머리에 ‘동의어’ 577개를 싣고 있는데, ‘동의어’라는 용어는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이나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의 ‘손말이 같은 단어들’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 까닭은 ‘결석=결근’, ‘미신=신앙’ 등이 동의어가 아니라 손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사전의 끄트머리에는 ‘반의어’ 266개가 실려 있는데, 이는 음성언어의 관점에서 반의어일 뿐 손말의 반의어는 ‘가다/오다’처럼 원형적인 손말 반의어 22쌍과 ‘가볍다/무겁다’처럼 비원형적 손말 반의어 29쌍, 모두 51쌍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전에서 손말의 형태와 의미 간의 닮음에 관한 ‘도상성’은 ‘절단기, 넥타이, 삼각형’과 같이 사물의 모양, ‘나르다, 구부리다, 도장, 가래질’과 같이 사물의 동작을 본뜬 사례들이 풍부하다. 닮음에 바탕을 둔 추상적 방향의 대립은 ‘은유’의 보기가 되는데, ‘기백, 최고, 풍작, 승배’ 등의 ‘위’, 그리고 ‘복종, 슬픔, 흉년, 패배’의 ‘아래’는 “좋은 것은 위, 나쁜 것은 아래”이며, ‘미래, 전망, 활로’의 ‘앞’, ‘과거, 어제’의 ‘뒤’는 “앞은 미래, 뒤는 과거”의 손말 은유이다. 대상의 특징적인 한 부분으로 대상을 나타내는 ‘닭, 돼지, 집, 양’ 등은 손말 ‘환유’이다.

한편, 『한국수화사전(2005)』에서 ‘가구’ ‘악기’ ‘건물’ ‘채소’ 등 상위어는 하위어의 원형적인 동작 및 기본층위 구성원과 여러 가지를 결합하거나 ‘명암’ ‘가감’ 등 이항 대립의 두 하위어를 합성하며, ‘봄’ ‘송아지’ ‘참새’ 등의 하위어는 상위어에다가 개체의 특징적인 성질을 결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임지룡 2021a: 829-834 참조), 북한의 손말사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3.6. 손말과 수어의 일치도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 한국의 수어와 북한의 손말의 같고 다름은 거의 논의 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김태수(2008), 박금순(2021)이 주목된다.

김태수(2008)는 한국의『한국수화사전(2005)』과 북한의『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에서 표제어가 일치하는 1,660개를 추출하여 '수형·수동·수위·수향'의 음운단위에서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그중 일치하는 어휘는 (33)의 213개(13%)이며, 음운단위 중 하나 이상 일치하는 경우는 776개(47%), 완전 불일치하는 경우는 671개(40%)로 집계되었다.

(33) 가난(하다), 가다, 가렵다, 가운데, 가위, 감자, 같다, 거북(거부기[16]), 걱정, 걷다, 걸레, 검다, 경기, 고구마, 고기, 고래, 고양이, 고장(나다), 곤란(곤난), 골짜기, 곱(곱하기), 곳, 공산주의, 구별(하다), 그네, 그러나, 기계, 기차, 길다, 깊다, 깎다, 꺼내다, 꽃, 꽃봉오리, 나비, 나쁘다, 낮, 낮다, 내일(래일), 넘어지다, 노래, 놀다, 높다, 누나, 느리다, 다니다, 다행, 단체, 단추, 닫다, 달아나다, 닭, 담배, 더하기[2], 던지다, 도장, 독일(도이월란드), 돋다, 동물, 동물원, 동안, 두다, 듣다, 따뜻하다, 따르다, 떡, 뜨겁다, 라이터(라이타), 막다, 만나다, 만들다, 만세, 맛, 먹, 멸망(하다), 명령, 명태, 모기, 모레, 모르다, 모습, 목욕, 목적, 몸, 못하다, 무너지다, 문어, 물다, 바쁘다, 바지, 발표, 배우다, 백, 버릇, 버리다, 범, 보다[2], 보도, 복숭아, 부럽다, 부산, 부족(하다), 부지런하다(부지런히), 부채, 북, 붉다, 비누, 비밀, 비슷하다, 빨래, 빵, 뼈, 사닥다리(사다리), 산, 생각, 서다, 서울, 석탄, 선거, 선물, 선조, 성냥, 세수, 소화, 수고(하다), 수첩, 승용차, 시작, 쓰레받기, 씨름, 아직, 알다, 압박, 앞, 얇다, 어린이, 어제, 언니, 얼굴, 역사(력사), 연기(내굴), 영화, 옆, 오늘, 오빠, 온도, 옷, 욕심, 울다, 웃다, 원숭이, 유리, 유치원, 유치하다, 의, 이사, 이야기, 일본, 일어나다, 자기, 자동차, 자립, 자연, 잘, 잠시, 잠자리, 전기, 전화, 절반, 젊다, 젓가락(저가락), 조각, 조금, 조심(하다), 좋다, 주다, 주사, 준비(하다), 쥐, 지다[3], 지붕, 지우다, 진찰, 집, 짜다[2], 짜다[3], 찢다, 책, 책임, 천[1], 천막, 체육, 축하, 친척, 칠판, 칼, 컴퍼스(콤파

16) '거북(거북이)'와 같이 쌍형의 경우 괄호 안에 제시된 것은『손말사전』(2005)의 용어이다.

스), 키, 털, 토끼, 토마토(도마도), 통, 편지, 평행봉, 피다, 하다, 학교, 행복, 형, 훔치다[2], 희망, 힘

박금순의 『한국수어 & 조선손말 : 남북한 기초생활 수어어휘(2021)』[17]에서는 『한국수어(한국농아인협회)(2018)』와 『손말학습(참고자료) (2005)』을 대상으로[18] 남북한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어어휘 497개를 선정 수록한 것이다. 두 사전은 분야별 기초생활 수어 또는 손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휘 수에서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이 533개이며, 『한국수어(한국농아인협회)(2018)』[19]가 1,350개인 점에서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이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의 끄트머리에 '찾아보기'와 『손말학습(참고자료)(2005)』의 '손말이 같은 단어들'을 싣고 있다. 『한국수어 & 조선손말(2021)』은 [그림 32, 33]에서 보듯이 '올림말(한국어, 한자어, 영어)' '남북한 수어와 손말 사진', '손말의 해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전의 김연주 한국수어 모델과 심정순 조선손말 모델의 컬러 사진은 선명도가 매우 높다.

이 사전의 497개 가운데 완전 일치하는 사례는 (34)의 90개(18.11%)이다.

(34) 만나다, 헤어지다, 괜찮다, 가족, (남자의)형, (남자의)남동생, 오빠, (여자의)남동생, 누나, (남자의) 여동생, 언니, (여자의)여동생, 아들, 딸, 집, 옷, 칼, 세수, 비누, 검정, 빨강, 회색, 떡, 빵, 빈대떡=녹두전, 복숭아, 고기, 감자, 학교, 컴퍼스, 가위, 자연, 산, 밭, 밤(夜), 낮, 언제=연월일, 돼지, 닭, 토끼, 쥐, 개구리, 원숭이, 여우, 호랑이, 잠자리, 나비, 모기, 벌, 새우, 거북, 체육, 기계, 전기, 공군, 국방, 만세, 명령, 선거, 죽다, 알다, 모르다, 좋다=좋아하다, 나쁘다, 젊다, 가르치다, 배우다, 말하다, 읽다, 쓰다, 그리다, 비싸다, 싸다, 느리다=늦다, 높다, 낮다, 깊다,

17) 『한국수어 & 조선손말 : 남북한 기초생활 수어어휘(2021)』는 가로 18.2×세로 25.5cm, 385쪽, 연장정 칼러판이다. 그 내용은 인사' '가족' '집' '지명·색상' '음식' '학교' '자연·날씨' '요일·시제' '동물' '인체·체육' '직업·경제' '사회일반' '동사·형용사(1)' '동사·형용사(2)' '동사·형용사(3)·조사'의 15과로 이루어져 있다.

18) 이 책의 '일러두기'에서는 『손말학습(2005)』의 설명이 불분명하고 애매한 경우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손말사전(2019)』을 참고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9) 『한국수어(한국농아인협회)(2018)』는 가로 18.8×세로 25.9cm, 387쪽, 연장정 컬러판이다. 그 내용은 '인사' '가족' '요일·시제' '자연' '학교(1)' '학교(2)' '교통 및 통신' '인체' '병원' '운동' '종교' '나라' '동물' '식물·성씨·색상' '음식' '직업' '사회 일반' '경제' '흔히 쓰는 단어들' '혼동되기 쉬운 단어들'의 20과로 이루어져 있다.

뜨겁다, 서다, 걷다, 던지다, 달다(甘), 만들다, 준비하다, 키우다, 진찰하다, 조심하다, 약하다, 이기다, -께=-에게

또한, 부분 일치하는 사례는 (35)의 59개(11.87%)이다. 물론, 부분 일치하는 사례들은 일치도의 정도성을 띤다.

(35) 인사, 안녕, 기쁘다, 고맙다, 미안하다, 아기, 청년, 문, 컵, 베개, 숟가락, 젓가락, 평양, 색, 초록, 술, 과자, 간장, 배, 포도, 딸기, 감, 파, 호박, 고추, 생선, 유치원, 중학교, 교장, 교사(教師), 연필, 칠판, 물, 불, 우물, 동물, 동물원, 개, 양, 말, 사슴, 노루, 물고기, 고래, 배구, 기술자, 합작, 알다, 크다, 듣다, 보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예쁘다, 아니다, 낳다, 도착하다, 놀다, 구원하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기초생활 수어 또는 손말 497개에서 완전 일치하는 사례는 90개(18.11%)이며, 완전·부분 일치하는 사례는 149개(29.98%)이다. [그림 31]의 '검정'은 일치하는 보기이다. 한편, 불일치하는 사례는 위의 (34)(35)를 제외한 348개(70.02%)이다. [그림 33]의 '하양'은 불일치하는 보기이다.

한국수어	조선손말
	
오른 손바닥으로 옆머리를 스쳐 내린다.	오른 손바닥으로 옆머리를 스쳐 내린다.

[그림 32] '검정'의 수어-손말

한국수어	조선손말
	
주먹 쥔 오른손의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①지를 세워 구부린 끝으로 치아를 가리킨다.	주먹 쥔 왼손의 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⑤지를 세워 ①지에 붙이고, 주먹 쥔 오른손의 ①지를 펴서 끝으로 왼손의 ⑤지 손톱을 가리킨다.

[그림 33] '하양'의 수어-손말

4. 마무리

이상에서 북한의 손말사전을 대상으로 그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간추리면서 이들 사전의 장점과 문제점, 남은 과제를 기술하기로 한다.

첫째, 이글에서는 북한의 손말사전인 ㉮『손말사전(롱아학교용)(2005)』, ㉯『손말학습(참고자료)(2005)』, ㉰『조선손말(카드)(2009)』, ㉱『손말사전(부문별손말)(2019)』, 그리고 ㉲『한국수어 & 조선손말(2021)』을 논의하였다.

둘째, 각 사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는 올림말 2,395개를 그림과 함께 해설을 달았으며 자모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경사회에서 사용하던 어휘와 특유의 정치와 군사용어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올림말 535개를 사진과 함께 해설을 달았으며, 18개 부문으로 짜여있고 각 부문은 빈도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치와 군사(83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문이며, '직업' 부문의 '로동자·농민·사무원·기술자·의사·리발·용해공·목수·재봉·작가'가 주목된다. ㉰는 54장의 트럼프 카드에 손말 106개가 맞선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글 올림말에 영어를 병기하였다. 올림말의 맞선 그림에서 대립어 34쌍, 유의어 2쌍, 부분-전체어 1쌍은 의미관계를 이루며, 관련어 3쌍, 인사어 4쌍, 수식관계어 8쌍은 의미장을 이루는 반면, '마시다-귀'는 의미적 관련성을 띠지 않는다. ㉱는 북한 최신의 대표적 손말사전으로서 올림말 4,018

개를 사진과 함께 뜻풀이 달았으며, 13개의 부문으로 짜여있고 각 부문은 자모순으로 되어 있으며, 남북한 손말 이질화의 사례로서 문화어에만 존재하는 단어 286개로 '건설(70)' '체육(47)' '교육·정보·국방(27)' 분야가 현저하다. ㉮는『한국수어(한국농아인협회)(2018)』와 ㉯를 대상으로 남북한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어어휘 497개를 선정 수록한 것으로, '남북한 수어와 손말 사진', '손말의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북한 손말사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의 북한 손말사전에서 올림말은 두음법칙과 표기법이 다를 뿐 아니라, 표준말과 별개의 형태를 가졌거나 북한에서 생겨난 어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사전의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손말의 관점에서 관련성을 지니지 않으며, ㉮㉯㉱의 '손말이 같은 단어들' 또는 '동의어' 목록은 의미의 외연과 내포가 균등하지 않으며, ㉱의 반의어 목록은 한쪽 또는 한 쌍이 올림말로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손말의 반의어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넷째, 북한 손말사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연계성'으로서, ㉯는 ㉮의 올림말 '[해설]'과 끄트머리의 '손말이 같은 단어들' 목록 1,369쌍을 공유하고 있으며, ㉱는 '손말사전을 내면서'에서 이전에 출판한 손말사전과 손말참고서의 일련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독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풍부한 손말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로서, 올림말의 동작·설명·배치를 ㉮는 그림·해설·자모순, ㉯는 사진·해설·부문별·빈도수, ㉰는 그림·트럼프 카드·맞선 배열, ㉱는 사진·뜻풀이·부문별·자모순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자모순은 이해를 위한 검색용이며 부문별은 표현용이다. '독자 친화성'으로서, ㉮의 '손말사전을 내면서' '일러두기' '차례의 올림말 목록' '손말이 같은 단어들', ㉯의 '머리글' '차례' '찾아보기의 올림말 목록' '손말이 같은 단어들', ㉰의 휴대용 트럼프 카드의 맞선 그림, ㉱의 '손말사전을 내면서' '손말동작표시기호' '조선손말자모편' '조선손말수자편' '차례의 부문별 올림말 목록' '장애자와 관련한 여러 상식들', '손동작에 대한 손모양 제시', '동의어' '반의어' '자모순 찾아보기' 등을 통해 사전편찬의 의도와 목적을 밝히고 독자를 배려하는 기회를 넓히며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는 남북한 기초생활 수어의 현황을 파악하기 좋은 텍스트이다.

다섯째, 북한 손말사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손말사전을 내면서' 및 '일러두기'의 지침과 본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올림말의 수치가 ㉮3,000여 개→2,395개, ㉯533개→535개, ㉱4,000개→4,018개이다. ㉮의 '올림말의 뜻풀이'에서 혼돈을 막기 위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경우 해당 뜻을 밝

힌다고 하였으나 ‘설복하다’와 같이 동음이의어인데 뜻풀이가 없으며 ‘모레’는 두 경우가 아닌데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의 18개 부문의 상위어 수록에 일관성이 없으며, ‘날씨와 자연’에 ‘해’, ‘동물’에 ‘소’가 없으며, ‘몸’에 내장기관만 올려져 있으며, ‘동사’에 ‘좋다[명]’의 오류이다. ㉱의 부문별 올림말은 자모순으로 되어 있지만 ‘건설’ 부문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며, ‘반의어’ 목록에서 ‘죄-공’이 자모순 원칙에 어긋난다. 사전의 가독성으로서, 손동작이 흑백사진으로 실린 ㉯, 특히 ㉱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올림말의 설명으로서, [해설]을 단 ㉮㉯와 달리 ‘뜻풀이’를 단 ㉱는 손동작의 측면에서 정보력이 약하다. 부문별 사전의 부문 명칭이 그 구성원을 망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의 ‘경제’ ‘교육’ ‘문학’에서 나타난다. 음성언어의 관점으로서, ㉱의 ‘동의어’ 및 ‘반의어’라는 용어와 그 목록은 손말의 관점에서 한계를 지니는데, 손말에서는 동의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반의어’ 266개 중 손말의 반의어는 51쌍에 지나지 않으며, 반의어의 짝이 올림말로 결손된 경우가 많다. 또한, ㉮의 ‘손말이 같은 단어들’이 올림말의 크기와 내용이 다른 ㉯㉰에 재수록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여섯째, 남북한 수어와 손말의 일치도이다. 『한국수화사전(2005)』과 ㉮의 표제어가 같은 1,660개의 완전 일치도는 213개(13%)이며, ㉰는 『한국수어(한국농아인협회)(2018)』와 ㉯를 대상으로 남북한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어어휘 497개를 수록한 것으로, 완전 일치하는 사례는 90개(18.11%), 부분 일치하는 사례는 59개(11.87%), 불일치하는 사례는 348개(70.02%)로서 남북한 수어 또는 손말의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일곱째, 남은 과제이다. 음성언어의 『겨레말큰사전』처럼, 『겨레수어·손말큰사전』 편찬이 절실하다. 이 사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어 또는 손말사전의 편찬은 ‘농인’과 ‘손말’의 관점에서 이루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한 손말사전들을 통해서 북한 손말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어를 되새기고 새로운 사전편찬의 기대를 하면서, 다음 두 가지 언급을 상기하고자 한다. 18세기 사전편찬학자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1755) 서문의 “살아 있는 언어의 어떤 사전도 완벽할 수 없는데, 그 사전의 출판을 서두르는 동안 몇몇 단어가 싹트고, 몇몇 단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임지룡(1997/2017: 252 참조).”라고 하였다. 『손말학습(부문별손말)(2019)』 ‘손말사전을 내면서’의 “《손말사전》 편집부는 독자들속에서 이번에 편찬한 손말사전》(부문별손말)을 리용하면서 제기되는 불편한 점들과 부족점들에 대하여 편집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1999).「표준국어대사전」. 서울 :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2016).「한국수어사전(https://sldict.korean.go.kr/)」.
김은희 (2005).「손말사전 : 참고자료」. 평양 : 조선장애자지원협회.
김태수 (2008). 한국수화와 북한손말의 어휘 비교 :「한국화사전」과「북한손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로경수·리광선·리철 (2019).「손말사전: 부문별손말」. 평양 : 조선롱맹경제문화교류사.
박금순 (2021).「한국수어 & 조선손말 : 남북한 기초생활 수어어휘」. 고양 : 베드로서원.
사회과학연구원언어학연구소 (1992).「조선말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안태성 외 8 (2005).「손말사전 : 롱아학교용」』.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윤병천·정욱찬·고인경 (2016). 조선손말 형태론적 분석.「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7권 4호, 137~156.
이난희·최상배 (2017). 북한수어의 수형 분석.「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권 1호, 77~96.
임지룡 (1997/2017).「<개정판> 인지의미론」. 서울 : 한국문화사.
임지룡 (2018). 한국 수어의 도상적 양상과 의미 특성.「국어교육연구」, 68권, 63～88.
임지룡 (2021a). 수어 의미 관계의 양상과 특성.「한글」, 82권 3호, 809~840.
임지룡 (2021b).「한국수화사전」의 성격과 해석.「국어교육연구」, 77권, 127~164.
임지룡 (2022). 수어의 비유적 도상성.「한글」, 83권 3호, 733~772.
임지룡 (2024). 수어의 인지언어학적 탐구.「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2024년 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8~32.
임지룡·석수영 (2015). 한중 수어에 나타난 대립어의 양상 비교.「현대문법연구」, 85권, 87~114.
임지룡·송현주 (2015). 한국 수어의 동기화 양상.「한국어 의미학」, 49권, 59~85.
주수양·리진혁·김성일 (2009).「조선손말(카드)」. 디자인 : 함께 함흥 롱아, 맹인, 장애자 교육쎈터(TOGETHER_Educational Center for Deaf, Blind and Nondisabled Children hamhung e.V.).
최상배·고은지·황윤재 (2019). 음운과 단어 수준에서의 남북한 수어 대조언어학

적 고찰. 「건지인문학」, 26권 1호, 377~400.
최상배·황윤재·고은지 (2022). 한국·북한·일본수어의 대조언어학적 특징.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논집」, 26권 2호, 1~20.
한국농아인협회 (2021). 「한국수어」. 서울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4). 「일본어-수화사전」. 서울 :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4). 「한국어-스페인 수화사전」. 서울 :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5). 「한국수화사전」. 서울 :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7). 「한국수화사전」(개정판). 서울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8). 「한국어-미국수화사전」. 서울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임지룡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전 화: (010) 2254-8710
이메일: jrlim@knu.ac.kr

논문접수: 2024년 11월 30일
수정완료: 2024년 12월 9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27일